

양양소식



2022. 4

Vol. 323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전통시장에서 만나는
'갓' 나온 봄

08 마을가는 길

현북면 장리

12 양양군청 IN & 人

경제에너지과



카메라를 대보세요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양양소식

Vol. 323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양양전통시장에서 만나는 '갓' 나온 봄
- 8 마을가는 길_ 현북면 장리
- 12 양양군청 IN & 人_ 경제에너지과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 우시장



시장 풍경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 18 향토사 이야기_ 일제강점기 양양지역 첫 전등불 점화를 알아본다
- 20 YANGYANG NEWS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_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양양소식 · 323호

- | 발행일 2022년 4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 양 전 통 시 장 에 서

만 나 는

‘갓’ 나 온 봄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고 있으니, 햇살과 바람의 포근함이 새삼스레 느껴진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전통시장이다. 사계절 내내 똑같은 모습을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풍경이 전통시장에는 있다. ‘갓’ 캐온 향긋한 나물과 채소, 화사한 봄꽃과 모종, ‘갓’ 잡아 온 싱싱한 생선과 건어물, 갖은 생활용품에 ‘갓’ 나온 간식거리와 먹을거리가 천지다. 그야말로 ‘갓’ 나온 봄소식을 활력 넘치는 양양전통시장에서 만나보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장

봄을 맞은 전통시장은 어느 때보다 매력이 넘친다. 화사한 봄꽃 화분에 마음이 설레고 초록빛의 싱그러운 묘목과 채소 모종을 살펴보다 보면 새로운 희망이 차오른다.

과일 중에서도 작지만 싱싱한 딸기 한 바구니는 가격도 부담 없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맛 좋기로 유명한 배는 전통시장 단골 상품이다. 감귤류는 들어가고 시장에는 이미 참외가 나온 걸 보니 계절의 변화가 단번에 보인다.

앞바다에서 매일 잡아 오는 해산물로는 가자미, 문어를 빼놓을 수 없고, 도루묵, 새치, 도치가 푸짐하다. 새벽에 잡아온 대구, 흥게 등을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 팔던 상인은 한 시간 만에 물건을 다 팔고 떠날 만큼 싱싱한 해산물은 인기가 좋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산나물 역시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유품이다. 달래, 냉이, 미나리, 쑥, 머위, 곰취, 참나물, 유채, 원추리, 두릅까지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온갖 나물이

천지다. 된장에 다진 미늘, 참기름이랑 깨만 넣어 무쳐 먹으면 향긋한 봄의 맛이 입안에 가득하게 퍼진다. 봄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 철분,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자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주고 활력을 준다.

양양에서 생산되는 나물은 설악산과 점봉산,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병해충이 거의 없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인정받고 있다. 송이를 비롯한 각종 버섯과 한약재도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시장 구경에서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는 골목마다 가득하다. 바로 튀긴 꽈배기와 찹쌀 도넛,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손두부, 막 삶아낸 족발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나오는데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즉석에서 만들어 나올 때마다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포장하기가 바쁘다. 옛날 과자, 옥수수빵, 뺑튀기, 호떡, 어묵, 치킨 등 없는 간식이 없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인 만큼 수십 년 된 칼국수, 메밀부침, 생선조림 맛집들이 시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4와 9로 끝나는 날이면 세 배로 커지는 양양전통시장

4와 9로 끝나는 날마다 열리는 양양 장날이면 남대천 둔치까지 가장자리를 따라 난전이 서고 좌판이 펼쳐진다.

양양전통시장은 평소에는 양양읍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형 상설시장이 운영되고, 닷새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인 오일장이 상설시장 주변과 하천변 사이에 펼쳐지는 복합적인 형태로 형성돼 있다. 상설시장 점포 60여 개를 포함해 시장 인근 점포까지 평소에는 15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데, 오일장이 서는 장날이면 여기에 난전 300여 개가 더해져 시장 인근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구경나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양양의 산물뿐 아니라 전국의 숱한 먹을거리와 물건들이 4와 9로 끝나는 날이면 양양오일장으로 모여든다. 오일장에 나오는 상인들은 인제 원통, 동해 북평에 이어 양양으로 온

다. 양양에 왔다가 정선 임계나 삼척 호산으로 장날을 찾아 다니는데, 보통은 10년 이상에 양양 오일장에 나온 지 30여 년이 된 상인들도 있다. 양양 오일장은 직접 농사지은 곡식이나 산과 들에서 직접 캐온 푸성귀를 가지고 나오는 지역 주민들도 많다. 이른 봄 노지에서 귀한 햇살을 받아 자란 나물이며, 된장이나 청국장, 장아찌, 들기름 등 제철 맞은 농산물을 조금씩 이고 지고 와 시장 거리에 자리를 잡는다.

평일에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장날이 주말과 겹치면 거리는 어느새 북새통이 된다. 도시의 시장이나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철 농수산물을 구경하는 재미는 물론, 물건을 팔다가도 두런 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흥정하다가도 슬며시 덤을 얹어주는 인심이 있는 곳이다.



예나 지금이나 설악권 최고의 전통시장

구한말 당시 형성된 양양오일장은 설악산 인근에 서 가장 규모가 컸다. 무엇보다 해안을 접하고 있어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해 인접한 원통, 인제 주민들까지 물물교환을 위해 구룡령과 오색령을 넘어 양양시장을 이용했다.

설악산 자락의 봉우리와 남대천을 따라 펼쳐진 평야, 동해까지 끼고 있는 축복받은 자연환경 속에 온갖 산채와 곡물, 해산물이 철마다 가득해 유통 중심지로서 충분했다. 양양시장 외에도 대여섯 개의 시장이 있었지만, 모두 폐지되고 현재의 양양 전통시장만이 남아 지금껏 설악권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들어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다. 오래전부터 행정, 문화, 상업, 금융,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양양읍 중심부에 시장이 있어 양양읍을 방문하는 이라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양양을 대표하는 송이축제, 연어축제, 양양 문화제가 남대천 둔치를 주 무대로 펼쳐지는 만큼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폭이 상당히 넓다.

상가 건물은 아케이드 설치, 진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상설 이벤트장 설치 등으로 현대적으로 시설을 갖췄으며, 2022년에는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현북면 장리

국내 최초로 '교계(校界)'가 발견된 지역
귀농 · 귀촌인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을
조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주민들

현북면 장리(獐里)를 찾아가는 길에 봄비를 만났다. 겨울 가뭄이 길어지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이들의 마음이 타들어 갈 때쯤 찾아온 반가운 비였기에 잔뜩 흐린 날씨에도 마음만은 상쾌했다. 마을로 이어진 길은 높은 산들로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어슴푸레 드러난 산등성이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꼭꼭 숨긴 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깊은 산중에서 발견한 오래된 비밀

양양군청에서 양양교 방향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가 다리 건너 오른편으로 59번 국도에 오르면 용천리, 수리, 내현리, 도리 등 여러 마을을 지나 장리에 들어선다. 노루가 폴짝 폴짝 뛰어다니는 것을 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첨첩산중에 자리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노루가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장리라고 칭하였는데 속칭 “노루골”이라고도 한다. 또한 옛날 뱃터말 근방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항상 눈이 녹아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노루가 자주 머물다가는 길지(吉地)로 장흥사(獐興寺)라는 절을 지었다는 연유로 명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지명유래 참조

또 다른 유래로, 이 마을의 지형이 노루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들었다. 지도에서 지형

을 살펴보니 노루 한 마리가 앞발과 뒷발을 한껏 벌려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부터 노루가 많이 살았다고 하니 과거에 사냥도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에 남아있는 금표(禁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북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와 연화동 바위에 새겨진 ‘교계’를 발견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교계(校界)’ 암각문을 통해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을 잡는 일종의 실전훈련이 진행 되었으리라 보며, 군사 훈련장 입구에 민간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교계(校界)’라는 각자를 새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산중에 묻혀 있던 역사적 사료의 비밀이 풀리면서, 이 마을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새겼다.





정주민과 이주민 간 아름다운 선(善) 지키기

장리에는 77가구 122명(2022년도 2월말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며, 15년 전부터 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전체 가구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로 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장리는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 있어서 맹목적인 화합이나 배척이 아닌,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쪽을 선택했다. 김석희 이장은 '정주민과 이주민 간에 갈등을 겪는 마을들도 많지만, 이 마을에서는 크게 목소리를 내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다. 모두 마을 일에 잘 협조해 주고 있다.'며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설명한다.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들이 다 잘 맞을 순 없죠. 저희 장리는 이장님의 선두에서 잘 이끌어 주니까 상호 간에 불편함이 있어도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주해 온 분들도 우리 정주민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최선인 님(83세)』

김봉연 노인회장은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농사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으러 오면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 준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살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공생의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의 삶만큼이나 타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역자사지(易地思之)의 원칙으로 마을의 평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관계의 선(線)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선(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장리를 통해 깨닫는다.



지난날을 기억하고, 다가올 날을 기대하며

김석희 이장은 마을에 이렇다 할 자랑이 없다며 겸허하게 말했지만, 보통의 여러 날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된 일도 마을의 굵직한 이슈 중 하나다. 2019년 양양소방서는 장리 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위급상황 시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각 세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으며, 당시 주민들을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김봉연 노인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작년까지 활발히 운영되던 마을 부녀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마을 행사 주관, 폐품 모으기 등 마을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녀회는 올해 10년간 애써 온 부녀회장이 물러남과 동시에 다음을 이어 나갈 사람이 없어서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그동안 마을 일에 열과 성을 다한 부녀회의 활약은 주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앞으로 장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다. 주민들이 차량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군도 2호선 확·포장 공사가



그중 하나이다. 김석희 이장에게는 속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하다.

「양양에서 장리가 가장 낙후된 마을이라고 봐요. 이장님의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지금 마을 도로가 엉망이에요.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치순 님 (79세)」

마을을 나서는 길에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간절한 바람 끝에 내린 비라 더 특별하다. 장리 주민들이 가진 각각의 바람들도 이 봄비처럼 언젠가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오늘을 지나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글·사진 : 편집부〉



경제에너지과

위기를 기회로
양양 경제는
우리가 지킨다!



부서 : 경제에너지과

규모 : 4팀 16명

업무 : 경제에너지,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지원

양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군민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일 것이다.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두에 서있는 부서가 있다. 기업유치와 지원, 일자리 창출, 에너지 관리,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에너지과'다.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쟁기고 있는 업무 현장을 찾았다.





작지만 알찬 조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고유가의 어려움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부서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양군청 본관 3층에 위치한 경제에너지과는 김규린 과장을 포함해 경제에너지,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지원 총 4팀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서로 소통하기도 좋고 업무파악이 수월한 이점도 있다. 그 만큼 작지만 알찬 조직이다.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경제에너지과는 양양에 거주하는 군민뿐만 아니라, 양양으로 이주해 온 기업과 타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이 양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서가 활기를 띠고 바빠질수록 양양경제도 함께 되살아나니 경제에너지과는 양양경제지표의 바로미터가 된다.

민생경제를 튼튼히

팀별 세부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에너지팀이 있다. 부서명과 팀명이 같은 경우는 양양군청에서 많지 않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제에너џ팀은 경제 진흥과 에너지 보급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팀이다.

기업지원팀은 기업유치 추진과 지원을 총괄한다. 공장설립 인허가와 등록,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을 맡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양양군이 3위로 입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에너지과가 거둔 큰 성과였다.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 육성 등 기업을 위한 지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창출팀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이어주는 한편 일자리사업 발굴과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또한 지역일자리 활성화로 이어진다. 매달 양양소식지에 실리는 일자리정보는 주민들에게 알찬정보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팀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와 운영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로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은 물론 양양오일장 관광객이 크



게 늘고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 다목적광장 운영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경제에너지과는 양양의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촘촘한 정책과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떠받치는 중이다.

미래가 더 기대된다!

올해 경제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 하나는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 차를 맞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다. 양양읍 포월리에 조성된 제1, 2 농공단지에 이어서 현북면 중광정리에 계획 중인 제3 농공단지가 지난 3월 8일 국토부 202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최종 반영되었다. 연어의 고장 양양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연어의 양식, 가공 등 수산물 6차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린 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경제에너지과 직원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며 양양군민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책들을 챙기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주민분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미처 전달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에



언제든 수시로 전화해서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민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 민생 이니만큼 지역민 가까이에서 알뜰살뜰 챙기고픈 의지가 느껴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도립공원 해제, 동해북부선 개통 등 지역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늘고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에너지과의 규모와 업무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것은 곧 양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만큼 양양의 미래는 밝다. 경제에너지과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 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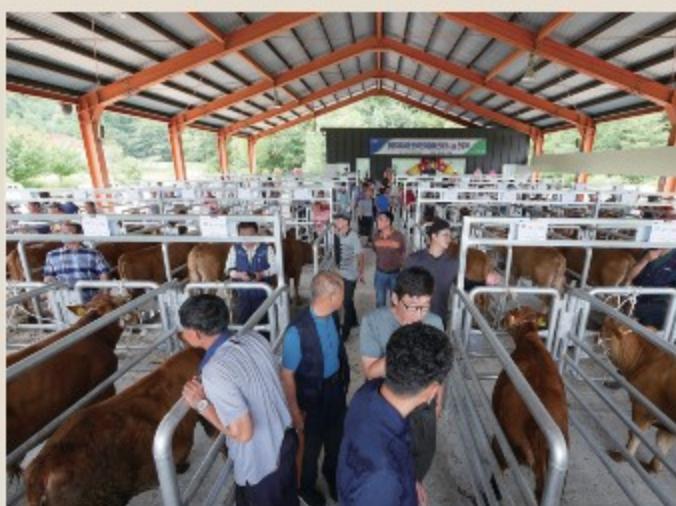


1968년(남문리)

그대가 다친 바람을 데리고
남문리를 헤매던 날
우시장 근처에 내리는 비는
깨어진 종소리처럼 내려서
수천 마리 소 울음을 들끓게 하고
남대천 돌다리에 닿고 있다.

잠든 사람은 잠들어도
몸이 아픈 이웃들은 흥년의 옷을 뺏아 넣고
우시장 쪽으로 열어놓은 그들 불면의 귀가 젖고 있다.
자고 나면 새 집이 늘고
누가 새로운 죽음이 되어 산으로 가는가.
바람맞이 언덕 나무를 모두 찍어내도
남대천 물빛은 혼들리고
비로소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씩의 무거움.

그대가 저물도록 남문리 모든 길을 돌아
우시장 근처에 이르면
비는 폭력처럼 내려서
들끓는 소 울음을 쓸어낸 후
빈 말뚝과 말뚝 사이
어디에 그대를 비 맞게 하겠느냐.



2019년(월리)

〈 남문리 우시장 / 이상국 〉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2건, 조례안 15건 등 총 24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두번째 회기인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2건, 그리고 조례안 15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3월 24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김

우섭)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을 심의하여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원안 가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양양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또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김우섭)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의원들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은 3월 31일 개의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의원 간담회 개최

3월 7일 열린 간담회에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보고받았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로운 위치에 신축·이전함에 따라 건물 완공 시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내·외부를 과학영농시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농정업무 편의시설로 탈바꿈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은 관내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당부하였다.

3월 2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실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현대차 EV사업부에서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우리군 공유재산을 현대차에 임대 해주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친환경 추세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설치함은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른 예상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일제강점기 양양지역 첫 전등불 점화를 알아본다

양양지역의 쌀, 목재, 자철광, 수산물 등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1909년 대포항이 개항되었고, 동해북부선이 1937년 12월 개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1938년 서면 장승리 철광 채굴을 위해 일본 종연공업주식회사가 광업소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양양군 지역에 전력공급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1910년경 전력사업을 독점한 일제는 1934년 춘천전기회사 양양지점을 개설하였고 명년 9월에 발전소를 세웠다.

우리나라 최초 전등이 점화된 지 47년 후 1935년 11월 1일 양양읍내에 처음 전등불이 밝혀졌다.

전기 관련 신문 기사와 역사 기록의 내력

- 1934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춘천전기회사 양양(襄陽)에 지점(支店) 설치 …… 임시주주총회에서 5만 3천 원을 증자(増資)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강원도에도 각 군, 읍을 위시하여 농촌까지 전기화될 것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1935년 7월 3일자 조선신문에는

…… 춘천전기주식회사(春川電氣株式會社)가 양양지점(襄陽支店)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300마력 발전소 부지 2871평, …… 11월에 일천등(一千燈)을 점화할 간물과 배전 공사를 급히 하기로 하였다고 나온다.

- 1935년 7월 6일 매일신보에는 춘천전기가 양양에 진출, 9월 중에 실현

…… 근래 발전기의 두 배의 발전력을 가진 디이젤 300마력 200kw 발전기를 새로 설비하고자 준비를 급히 하고 있는데 춘천전기주식회사의 획기적 계획인 동해안 양양군에 진출, …… 도(道) 주산중 사장, 궁내 지배인이 출장을 와서 지주측과 일체의 교섭을 마치고 9월 중에 춘천 본사에서는 새로 5만 3천 원을 증자하였는데 대부분은 구주주(舊株主)가 인수하고 잔여만 양양군에 분배하였다고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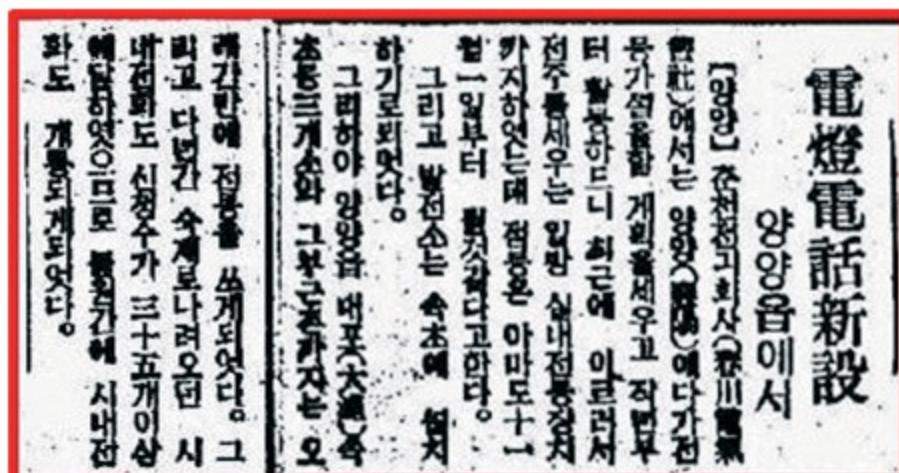
춘천전기회사 양양에 전기지점설치



춘천전기, 양양 진출

- 1935년 9월 14일 동아일보에는 전등 전화 신설, 양양읍에서

[양양] 춘천전기회사에서는 양양(襄陽)에다가 전등 가설 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활동하더니 최근에 이르러서 전주를 세우고 실내 전등 장치까지 하였는데 점등은 아마도 11월 1일부터 될 것 같다고 한다. …… 그리고 발전소는 양양군 속초리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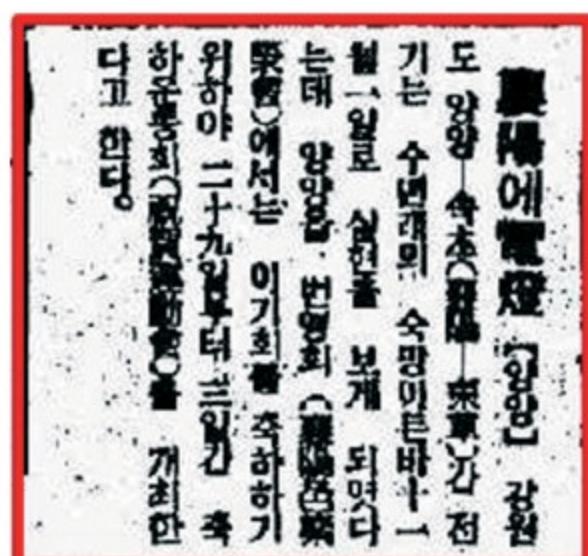
양양읍, 전등 전화 신설

- 1935년 10월 29일 조선신문에는

…… 시험 점등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무료송전 … 한다고 보도 했다.

- 1935년 11월 1일 조간 3면 11단수 동아일보에는 양양에 전등

…… [양양] 강원도 양양-속초(襄陽-東草)간 전기는 수년래의 숙망이던바 11월 1일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는데 양양읍번영회(襄陽邑繁榮會)에서는 이 기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29일부터 3일간 축하운동회(祝賀運動會)를 개최한다고 나온다.



양양 전등 신설

- 양주지에 의하면

…… 1936년 일본 종연공업주식회사에서 개광용(開礦用)으로 양양읍 청곡2리에 화력발전소 300마력, 250마력, 도합 550마력을 설치하여 330kw의 송전으로 산업용과 일반 가정용으로 충당하여왔으나 이 역시 부족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필요에 따라 양양 읍내와 광산이 있는 인근 마을 장승리와 서선리 등에서만 전등불을 사용하고, 양양 군 농촌, 어촌, 산촌에서는 여전히 실내에 코쿨(고콜; 두메에서 밤에 불을 켜 때 불붙은 관술을 올려놓기 위하여 벽에 만들어 놓은 자리)을 설치하여 소깽이(관술)로 조명하거나, 식물성과 동물성 기름, 어유 등을 연료로 하는 등잔(호통불)과 1876년경에 일본으로부터 석유가 수입되어 연료로 사용하면서 뚜껑을 덮는 폐쇄형 등잔 또는 남포등(lamp)으로 조명하였다. 또 광산 간도 안에서는 '간데라(candle)'를 이용하였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양양군 최종 선정

‘내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양양군이 최종 선정됐다.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 관광 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집약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모두 40개 도시가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후보지 12곳을 선정하고, 이후 세부사업계획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6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규모와 지역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해 △교통연계형(지역공항, 고속철도 등 보유 지자체) △관광명소형(전국 지자체) △강소형(인구 15만 명 미만 지자체)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이중 양양군은 강소형(인구 15만 명 미만 지자체) 유형에 최종 선정됐다.

부서별 관리감독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양양군은 지난 3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 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직무교육으로 부서별 관리감독자 및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최요한 (주)세이프지 대표가 강사로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방안,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등 관리감독자의 전반적인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 교육했다.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



양양군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점 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규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점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양양군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민원접수 기한을 변경 운영한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촬영 당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한 것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민원접수 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고, 지난 3월 28일까지 이에 따른 의견신청서를 받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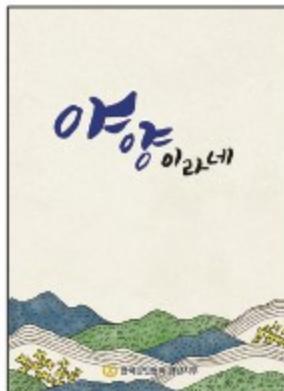


불법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활용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4월 책이야기

야양이라네

| (사)한국문인협회 양양지부
| 흥익출판사
| 2021. 12월



값비싸기로 유명한 '송이버섯'과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연어'와 함께 서평으로 한층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도시 '양양'. 양양사람들은 '양양'을 '양'이라 하지 않고 '야양'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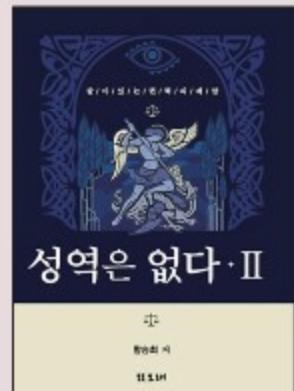
이곳 양양사람들이 양양이 생긴 아래 처음으로 양양에 관한 시(詩) 만을 뜯은 테마시집 '야양이라네'를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양양지부가 지부장인 한상호 시인을 비롯해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출간한 이 시집은 '양양'을 정감 있게 부르는 '야양'으로 담아냈다. 다섯명의 초대시인과 열두명의 양양문인협회 회원, 다섯명의 출향시인, 스물아홉명이 전국 문인 시가 수록됐다.

꺼칠한 말투
뻣뻣한 표정
그 안에 또
떫은 막 한 켜
무얼 그리 감추시나
상앗빛 깊은 속살
먹어보면
팍신팍신 달근달근
막 껴낸 햇밤
「야양사람들 - 한상호」

서적에 관련된 문의는 martin7han@naver.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성역은 없다 2

| 함승희 지음
| 오래
| 2022. 2월



함승희 前 강원랜드 사장이 '성역은 없다 Ⅱ'를 상재(上梓)했다. 전작을 잊는 의미에서 3장부터 시작, 자유와 민주의 참뜻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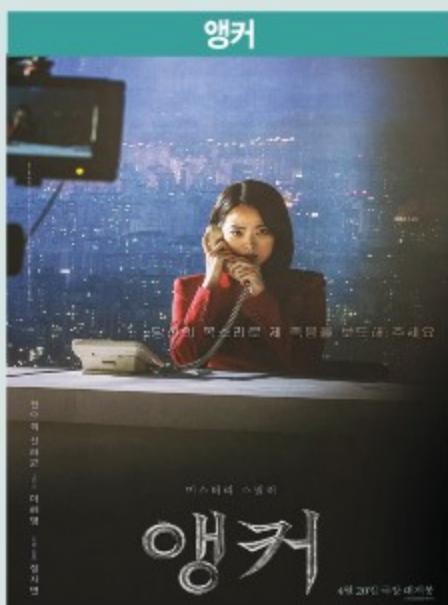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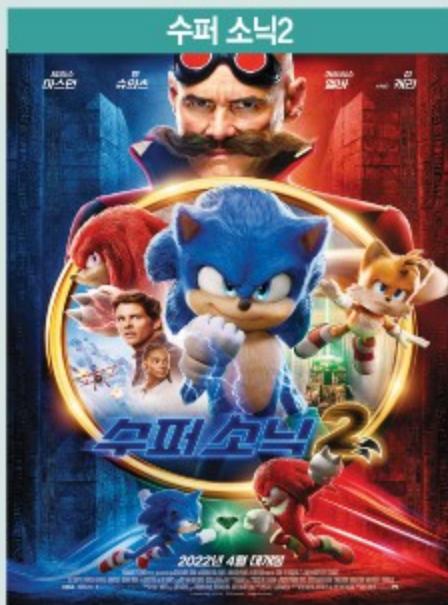
함 前 사장은 1권이 발간됐던 1995년으로 돌아가 전개를 이어나간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의욕이 넘쳤던 검사 말년부터 그가 검찰을 떠난 이후 벌어진 공적 삶이 세밀하게 기록됐다. 각 장마다 쓰인 당시의 사건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현재 청파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청파장학회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초대 소장이자 양양군의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故함상순 의장(호 청파)이 생전에 양양군 농업발전과 농업경영인의 자립 발전에 힘써 온 뜻을 반들여 그 자녀들이 설립했다.

청파장학회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381명의 농업경영인 자녀들에게 7,7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건강알리미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대상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2년 기준

사업안내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지원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가능



■ 지원백신(17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안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안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V)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르거나, 지역접종시 접종일정(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이용절차

0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일정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해당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합니다.

02. 신분증(보호자 주민등록증 등),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03. 지정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원할 경우, 문자수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04. 담당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05.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예방접종일정을 안내받습니다.

문자수신에 동의한 경우, 지정의료기관으로부터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시작하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낙산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이상 (협의)
(주)남양안디스트리	1명	경리사무원	08:00~17:00 (주5일)	월190만원
진양산업	1명	코디리 생산직	08:00~17:00 (주6일)	월230만원
(주)재성정보통신	1명	네트워크관리자 (경력직)	08:30~18:00 (주5일)	연4,000만원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1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08:30~18:00 (주5일)	연2,400만원
	1명	통신전기 현장소장 (경력직)	08:30~18:00 (주5일)	연4,000만원
(주)신우그린 (설해원)	2명	골프장코스관리원	08:00~17:00 (주5일)	연2,600만원
양양군민약국	1명	의약품관리원	09:00~18:30 토: 9시~13시	월200만원이상
CU하조대C점	2명	편의점판매원	19:00~01:00 01:00~08:00	시급10,000원
(주)소노인터넷내셔널 (쏠비치)	2명	조리사	시간협의	월220만원
	3명	조경원	08:30~17:30 (주5일)	일급74,000원
(주)세인	3명	용접원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주)매홍엘앤에프	1명	생산관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심미아파트	1명	아파트경비원	격일근무	월222만원
(주)가성증합건설	1명	건물관리원 (부부상주 가능자)	협의	월207만원
삼주종합건설(주)	1명	건설현장 물질관리자 (건축신입기사 필수)	07:30~16:30 (주6일)	연5,000만원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5월)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5월	5. 2 ~ 5. 26.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4. 25 ~ 4. 29.	(주간) 파워포인트 입문반 (파워포인트 기본과정)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 ▣ 교육인원 : 각반2명(선착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 ▣ 교육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 신청방법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 ▣ 모집기간 : 2022. 3. 7. ~ 4. 29.
- ▣ 모집대상
 -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만 65세 이하 성인 선착순 90명(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전검사 후 확정)
 - ※ 제외대상 :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자이거나 약물복용자

대상	대상	우선선정 기준
만 19세 ~ 65세 양양군 거주자 및 직장인	① 혈압 - 수축기 130mmHg 이상 - 이완기 85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00mg/dL 이상 ③ 하리둘레 - 남 90cm 이상 - 여 85cm 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 이상 ⑤ HDL 콜레스테롤 - 남 40mg/dL 미만 - 여 50mg/dL 미만	신규참여자 및 건강위험요인 개수가 많은 사람 우선 선정

- ▣ 필수참여요건
 -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양양군 거주자 및 직장인
- ▣ 참여혜택
 - 3회 무료 건강검진 제공 및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활동량계(스마트밴드) 및 체성분계 등 제공
 - 우수 참여자 스포츠 용품 등 인센티브 제공
- ▣ 문의사항 :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33-670-2871, 670-2371, 670-2941, 670-2541)

일반/전문 위탁부모 연중모집

- ▣ 위탁대상아동 : 아동학대, 폭력, 빈곤으로 친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
- ▣ 일반위탁부모 조건 :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 이수 필수”
 -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 포함 자녀수 4명 이내
 -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 없는 가정
- ▣ 전문위탁부모 조건 :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이수 필수”
 - 일반위탁부모 조건 및 보호가정 전문요건* 1개 이상 충족자
 -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
- ▣ 문의사항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033-255-1406)
<http://www.foстercare-gangwon.or.kr/>

‘청년’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청년전세자금보증

- ▣ 보증대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 보증 이용 시 보증료 : 연 0.02%(최저보증료를 적용)
- ※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사로 문의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714)
 준법경영부 광고심의필(2021-0007, 2021.02.17.)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 3 9 0

실내 공기질 이렇게 관리하세요

환경부

환기



창문 열기 등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다만,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자체 (에어코리아에서 확인 가능)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필터 관리 시기를 놓칠 경우 미세먼지 재발산, 세균 번식 등 우려



조리시에는 후드를 사용하고,

조리 후에는 30분간 환기합니다

※ 조리 증기는 미세먼지, 미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

청소



가라앉은 먼지 제거를 위해 물걸레로 청소합니다

※ 비단에 쌓인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 수 있음



침구와 의류는 주기적으로 세탁합니다

※ 진먼지진드기, 먼지 등을 세탁하여 공기 중으로 끊는 것을 방지



곰팡이가 있으면 제거합니다

※ 특히 복실과 같은 곳은 습기가 많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움

그 외



화학제품은 불필요한 사용을 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합니다

※ 진드기/곰팡이 제거제 등 무언가를 죽이는 제품은 사용에 더 유의



친환경 제품은 적게 나오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 친환경 제품은 녹색제품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정보꾸러미



www.lpgtruck.co.kr

LPG화물차 구매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유사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카고 구입 시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화물 소유자 및 기관
▪ 도로법 3종 건설기계 및 DPF 청적 후 고장 치료도 지원 가능

사업 내용
사업 기간 2022.01 ~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수 15,000대
지원 금액

-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
- 초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 생계형 초기폐차에 한해 최대 600만원 지원
 - 초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 경유차를 초기폐차 기준으로 충족하는 차량에 한함
- 기아차 프로모션 20만원 추가할인(불고고에 한함)

사업 절차

신청 방법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이 기재된 사용년월과 차량번호가 적힌 '고시/국고'란 곳에 글씨로 확인하여 신청(지자체별 상이)

문의처
 > 사용년기자(자동차등록증) 지자체 사업 담당자
 > LPG사업 지원센터(1833-6501)
 > 홈페이지 www.lpgtruck.co.kr

LPG화물차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초기폐차 지원금 혜택

친환경 LPG화물차 구매하면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등급 경유차를 초기폐차 할 경우 일반 차주는 초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생계형 차주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폐차	초기폐차(일반) 최대 300만원	LPG화물차 보조금 200만원	최대 500만원 혜택
	일반 폐차	LPG화물차 보조금 200만원	200만원 경액 지원

▪ 생계형* 초기폐차에 한해 초기폐차 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원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저잔창치 미개발, 저잔창치 정착불가 차량 소유자
 *폐차판매비 별도

2023년부터 경유 택배차 등록 금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시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LPG화물차
LPG화물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0배 불과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요소수 불필요

요소수 필요 없는 LPG화물차
LPG화물차는 경유차에 의존 잠복해야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가 불필요하여 요소수를 주입할 필요가 없으며, 진동과 주행소음이 적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관련부처

만 5-11세 소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소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율이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접종대상

 **고위험군 소아는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만 5세 ~ 만 11세

주민등록상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

주민등록상
2010년생 중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소아

백신종류 및 접종간격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8주(56일) 간격으로 접종**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3주(21일) 내 접종 가능

예약방법 및 일정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예약 : 3월 24일(목) ~



- 당일접종 :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누리집 예약 : 누리집(ncvr2.kdca.go.kr)을 통한 보호자 대리예약
- 전화예약 : 콜센터(1339) 및 지자체 예약을 통한 보호자 대리예약

접종일 및 장소



접종* : 3월 31일(목)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당일접종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참고


**소아는 접종 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만 5~11세 소아는 보호자 등 동반여 필수이며,
본인확인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준하여 실시